

# 서울·부산시장 투표 일제히 시작...투표율 50% 촉각

앞으로 1년여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 도시 부산을 이끌 수장이 7일 결정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는 전국 21개 선거구, 총 34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21명을 새로 뽑는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서울·부산시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다.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기간 전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후보들이 두자릿수 차이로 여권 후보들에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1일부터 7일 오후 8시)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보궐선거 결과 전망에 대해 '두 지역 모두 야권 후보(오세훈·박형준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0%에 달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박빙 구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6일)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산, 서울 다 국



민이 힘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현장 민심은 경제 파탄, 부동산 파탄, 위선, 내로남불로 국민 전체가 붕괴 수준"이라며 "서울에서 오 후보가 안정적인 두 자릿수, 최소한 15%포인트(p) 이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표현하기 시작했다"며 "3%p 내외의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도 전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선거는 투쟁을 열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차마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못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승자뿐 아니라 지난 2~3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급 흥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4·7재보선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20.54%로,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20.14%)을 다소 넘어섰지만,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26.69%)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2019년 4·3 재보선(14.37%), 2017년 4·12 재보선(5.90) 등 역대 재보선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최종투표율 50%의 벽을 넘길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데, 여야 모두 투표를 두려워하면서도 해법은 달리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을 경우 전통적으로 '정권심판' 성격이 강해 야당에 유리했지만, 이번 선거는 양당 구도가 형성돼 각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스윙보터(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이들)들의 비율도 높아서 결과를 선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총투표율이 45% 미만일 경우 여당 후보가, 50%를 넘기면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이른바 '5% 룰'을 제시하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드케이 소장은 "대개 진보 성향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보수 성향 유권자는 본투표를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며 "총투표율이 45% 미만이라면 민주당이, 50%를 넘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광수/기자

## [칼럼] 코로나19의 신출 귀몰 언제까지 갈까

코로나19가 출몰한지 2년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방역당국의 지침과 확진 결과의 수치를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를 도배하는 것은 물론 속수 무책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감염자의 확진 소식에 마치 보이지 않는 귀신 마냥 두려움에 떨게 한다.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의문점이 있어도 감히 묻지조차 못하는 현실은 서서히 퍼져가는 질병보다 더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빛은 늘어만 가고 어둠사리 다시 살아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모든 식당이나 카페 출입시 출입 명부에 출입자 전원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 업무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도서관·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가능했던 음식물 섭취도 전면 금지됐다.

최악의 상황에서 나아져도 시원함을 판에 갈수록 태산이다.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봄이 와도 꽃만 피우지 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특징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아크릴판을 넘지 못하는가 하면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출몰하는 시간대 영업금지 방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공공기관이나 기타 공동 시설물에서는 거리두기가 철저히 실행되고 있지만 버스터미널에 길게 늘어선 대기 줄은 거리두기를 안 해도 코로나19가 범접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의 모순도 가지가지다. 가령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가 시장판을 다니며 유세할 때는 즉근들이나 방충구 카메라 기자들이 서로 밀치고 부딪힐 만큼 혼잡해도 감염되지 않으며 넓은 한강변의 간이 텐트는 거리두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교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코로나19 감염의 방역 모순은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 해명되겠지만 문제는 당장 벌어진 민생고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숨통을 트인다 했지만 이를 맞다고 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당장 손에 쥐어진 몇 푼의 현금이 현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이다.

이제는 코로나19 단어를 치기에도 지쳐가는 날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말로 도움을 줘야할지 막연하다. 이미 재난지원금에 중독된 가난의 비상구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여전히 자금줄을 쥐고 있는 자본가들의 관망은 힘없고 돈 없는 민초들이 하나 둘씩 수저를 놓아야 돈을 풀까.

치솟는 부동산, 명품전의 할인 판매에 아우성을 치는 고객들, 하루아침에 폐단을 벌었다며 가상화폐의 천정부지 치솟는 시세 차액은 성실히 일하려는 자들의 의지를 꺾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다.

필자가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생활정보신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전제로 할 때 일거리는 부족하다지만 정작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어렵사리 구해도 4대 보험을 요구하고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동의 해줄 것을 요청한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근무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몇 달 동안 타면서 놓고 먹을 수 있으니 당초 복지정책의 목적이 악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적잖은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사법당국으로부터 최대 징역 5년이라는 형벌까지 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작업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모두 장악하고 나니 정작 내국인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가도 못하는 입장으로 늘어간다.

대량 정리하자면 질병은 늘어나고 단속은 강화 되지만 명확한 이해 기준은 모호하고 경제는 최악인데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든다. 정부는 돈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갈수록 애매한 실정이라면 과연 살만한 나라일까.

국민이 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전투구로 상대 후보에 대해 막말을 서슴치 않으니 서로간의 말이 맞다면 둘 다 시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제 선거를 하루 앞두고 너도나도 표를 달라며 아우성치고 자신만이 대안이라고 한다. 사전선거의 높은 투표율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며 막판 표심잡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어차피 둘 다 당선될 수는 없고 이제 내일 저녁이면 서서히 당락에 따른 희비가 교차될 것이다.

이쯤에서 잠고 가자. 선거는 때가 되면 끝나겠지만 둘 다 쏟아 놓은 공격적 말들은 어쩔 것인가. 국민들 앞에 천하의 불한당으로 몰아놓고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넘어갈 것인가. 이리니 국민을 호구로 알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자면 여당이 다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야당은 신났다. 어이없는 코미디에 헛웃음만 나온다. 여당이 잘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야당이 워낙 못하니 덩으로 얻은 권력이다.

이번 선거에 국민들은 다시 부실한 야당을 찍을 수도 없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야당의 선호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정신 못 차린 야당이 신날 일도 아니고 여당 또한 이번 기회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뜻을 새겨 지속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권력을 잡으면 기고만강한 방식이 어떻게 잡은 권력을 놓치게 만든다는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 한 번씩 이럴 때 마다 속 시원한 대안이 생기길 바라지만 익숙해진 선거문화에 될 더 바랄까.

이쯤하고 미국이나 인도는 수 천만 명이 확진되었지만 정작 베트남의 경우 35명 사망에 2600명 감염이 전부다.

나라별로 천차만별이고 국내에는 꾸준한 감염자의 증가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덕암/김근식



# 오늘 서울·부산재보선 누가 웃을까 1년 뒤 명운 걸렸다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지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차 그리고 총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이자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의 민심 향방을 가늠하는 풍향계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임기 1년짜리 시장 등을 뽑는 이번 선거를 '대전전조전'이라 부르는 이유다.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안정론'과 '심판론'을 내세워 격하게 맞붙었다. 선거에 임박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이번 선거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내길 바라는 민심이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여야는 정책 경쟁 대신에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편승한 거짓말·네거티브 공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강력한 투표 의지를 보여 줬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서울 21.95%, 부산 18.65%)를 기록했다.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만 18세 이상 서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

표층은 84.6%에 달했다. "깜깜이 기간" 직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각각 앞섰다. 하지만 '샤이 진보' 결집 등 변수가 남아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박빙 승부'를, 국민의힘은 '대승'을 전망하고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정부는 국정동력을 되찾고 야권은 빠르게 재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당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앞당겨지고 부동산 대책, 검찰 개혁 등 핵심 정책의 노선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밤까지 선거구를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6일 "이번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가짓말이 통하는 세상, 불의가 승리하는 흑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디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 무능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투표는 지정된 본인 주소지 투표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개표는 8시 30분부터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만식/기자

#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재정적자 확대...정부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과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56조6000억원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발생했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56조6000억원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파로 71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9조2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수지에서 사보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8%로 3.0%포인트 각각 악화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IMF(국제통화기금)의 2020년 일반정부 수지점망에 따르면 세계는 -11.8%, 선진국은 -13.3%로 우리나라(-3.1%)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부채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결산 자료를 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한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190조8000억원(8.3%) 늘었다.

이처럼 기재부 재정건전성고장은 "절

대적인 부채 기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며 "기초통화국 기준으로 해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비기축통화국의 단순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47.8%였지만 우리나라는 40.9%로 훨씬 낮았다.

전순희/기자

#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효과적인 학교성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성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性)가치관 확립에 필수적인 교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 부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효과적인 학교성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안광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현아 보건교사(둔대초등학교)의 발제와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과학진 학생, 김대우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수, 이규은 동서대학교 교수, 염은정 운양고등학교 학부모, 허옥희 안산성포초등학교 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린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광률 의원은 "학교성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性) 가치관 확립에 필수적인 교육이지만 학교의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금기시되는 교육처럼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효과적인 성교육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학

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교육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숙의하여 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둔대초등학교 조현아 보건교사는 성교육의 의미와 성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학교성교육의 요구와 현실을 설명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한 FGI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효과적인 학교성교육을 위해 학생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교육 담당교사 배치 및 거점지원센터 설립,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3학년 과학진 학생은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이 올바르게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성교육 기회 부족과 기억에 남지 않는 교육이었다고 답했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

되는 똑같은 성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올바른 성관념을 키워나가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대우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내용에 관하여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성교육에 대한 업무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해 가지지만, 거점 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보다는 보건교육지원센터를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보건장학사를 배치하여 성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규은 동서대학교 교수는 "현재 학교 성교육은 제자리걸음 중으로 차체에 우리 학교성교육에 대해 본질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의 의무 확보, 학교 성교육표준안 정착을 위한 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성 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학



교성교육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염은정 운양고등학교 학부모는 "학부모입장에서 성교육은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 스스로 왜곡된 성 정보를 걸러낼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현재 성교육의 기초가 보수적이고, 생물학적 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만큼 교사

역량강화 및 성교육 표준안 마련, 성교육 대상 확대를 통해 효과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옥희 안산성포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도 현재의 성교육에 대해 긍정적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학생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학교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도 소통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방향을 마련해 교사 부족과 교육시수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

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중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근수기자

# 양평군의의회 박현일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통과 '전력투구'

## 소병훈, 양기대, 양경숙, 김성주, 이용호 국회의원 면담 지원 호소

양평군의의회 박현일 의원은 지난 3월중 소병훈 국회의원(국토교통부)과 양경숙 의원(기획재정부), 양기대의원(예결특위), 김성주의원(보건복지위 간사) 등 4명의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한데 이어 지난 30일에는 이용호 의원(예결특위)을 찾아 서울~양 평간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 피력하며 예타통과를 위한 관련부처 설득과 지원을 강력 호소했다.

양평군의의회 박현일 의원이 오는 4월8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종합발표를 앞두고 홀로 동분서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동균 양평군수를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은 예타 통과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과 5일 소병훈 국회의원과(광주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와 양경숙(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양기대 의원, 24일에는 김성주 의원, 30일에는 이용

호 의원을 찾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며 예타통과를 위한 관련부처 설득과 지원을 요청 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이르면 4월8일 예타 종합발표를 앞두고 양평군과 광주시, 하남시의 80만 시·군민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3개 시·군이 지원사격에 나선 바 있다. 양평군은 지난 2월 4일 하남·광주시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건설' 조기 착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차량이 몰리는 국도 6호선,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 동부권역의 핵심 교통축이 될 것"이라는 점도 어필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길이

26.8km 사업 1조4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 사업으로 지난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착수됐으나 BIC가 1이 조금 안되게 나와 정군수는 물론 박의원이 국회의 정부 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국토교통부가 촉진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동부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성 평가'비율을 최대한 높게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이밖에도 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도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구 간 4차로 확장 등 4개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을 하반기 제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고시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정 군수는 지난달 31일 다시한번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국회의원과 황성규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

로의 건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군수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을 만난 데 이어 2월에는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는 등 고속도로 유치에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지사 또한 지원사격에 합류했다.도는 지난 2월 8일 기획재정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속 추진 건의' 공문을 통해 "이 사업은 수도권 광역도시권 순환교통망을 보완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각종 중점규제로 인해 여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동부권과 양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3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조사 통과(정책성평가 비율 최대한 높게 반영 등)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동의 이번 건의의 핵심은 '정책성'평가 비율을 최대한 높게 반영해달라는 부분이다. 예



타의 핵심인 '경제성'확보 이외에, 경기동부권의 '교통복지' 정책 측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내·외부의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1조47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국책사업외에도 국도37호선 양평~여주간 4차로 확장에 총1063억원,그 외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된 국도37호선 양평~가평(옥천~설악)2차로 개량 1820억원, 국도37호선 양평 덕평~옥천 2차로 개량 925억원, 국도 86호 선 양평~가평(서종~설악) 2차로 개량에 총사업비 782억

원 등 총 4590억원이 소요된다.

이날 박의원은 이밖에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강하~강상 국지도 88호선과 양근대교 4차로 확장 435억 원(국지도98호선), 강하운심리~광주 퇴촌 간 국지도 88호선 641억원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 배정을 요청, 해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양평 현안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팔당 규제도 고통을 받고 있는 양평 등 경기동부권 적극 협조에 앞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성욱기자

#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 「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 플라스틱 1회용품 재질·두께 기준' 신설 → 플라스틱 발생량 최소화할 근본적 해결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외정읍)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

라서 포장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현재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포장 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윤 의원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

치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 시킴으로써 탈(脫)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최만식기자



# 김수홍 의원, 황등로 간판개선사업 5억 확보

## 올해 평화동 거리에 이어 2022년 황등면 거리 간판개선사업 선정.. 각 5억원 투입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 지역구)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중앙 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익산시 황등로가 최종 선정되어 향후 황등면의 깨끗한 경관 조성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돼 올해 시행될 예정인 장인동에서 평화동 구간에 이어 황등로가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낡은 거리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여겨진다.

특히 황등로는 석재산업의 몰락과 함께 상업지역이 쇠퇴하게 되면서 폐업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 중인 점포라 해도 간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거리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거리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모에 심혈을 기울였다.

익산시 도로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모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황등면 거리의 간판개선사업 지원 필요성

에 대해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행안부는 2020년 중앙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에 황등로를 선정하여 4월 5일 발표했다.

김수홍 의원은 "한 때 성황을 이루던 황등로 거리의 영광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첫 단계로 경관개선사업을 따낸 것"이라며 "석재산업의 새로운 살길을 모색하는 한편 황등면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유석 /사장 임석경 /편집국장: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서울특별시,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여담재' 특별전 개최

##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의 삶 발굴하고 알려나갈 것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옛 원각사(창신동 7-26)에 여성역사공유공간인 '서울여담재(女談齋)'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개관 기념 특별전 '여담재, 매화로 열다'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부족한 여성사 연구 확대와 시민들의 관심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서울여담재'를 조성하여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여담재는 2개동(연면적 763㎡)에 ▲여성역사 서가 ▲여성역사 배움공간(강의실, 영화상영관 등) ▲여성사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바로 옆에는 조선 실학자 지봉 이수가 살아있던 집터인 비우당(庇雨堂)이 자리해 이와 연계한 어린이 여성사 배움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성역사 서가에는 여성 역사인물, 생활사 자료, 노동·문화·사회 등 분야별 활동사 자료, 구술자료 등과 지역별, 시대별 여성사 자료 등을 발굴해 비치한다.

이외에도 여성역사 특강, 여성 주제 영화 상영, 여성사 자료 전시 등을 연중 진행한다.

'여담재, 매화로 열다'는 여담재 비전 '지나온 여성의 역사를 읽고 미래를 열다'에 따라 일반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대중 친화적 주제를 선정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특별전시로 사전예약제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동원 여성작가의 매화작품전시를 통해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재해석하고 융합해 새로운 여성주의적 방향을 제시, 여담재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관

기념 특별전은 오는 7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매화 소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여성성을 주제로 지상2층 교육소통공간에는 목매, 청매 작품을 전시하고, 지하2층 전시공간에는 이동원 작가의 대표적 작품인 매화희신보, 설매를 비롯해 탐매작품을 전시한다.

지상2층 교육소통공간에는 목매와 청매 작품 총 7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해경 관장, 이동원 작가, 김지현 큐레이터가 출연하는 여담재 전시동영상 상영하고 있다.

지하2층 전시공간에는 설매, 매화희신보, 탐매 작품 총 164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신병준 국립중앙박물관 도슨트가 강의하는 여담재 교육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방침에 따라 별도 공지 시까지 사전예약관람제로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회(10-12시/14-18시), 회당 30분 관람 가능하다. 관람 예약은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참석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여담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 도록을 이북(E-book)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료도 공유 예정이다.

서울여담재 홈페이지 초기 화면 메인 배너나 상단의 온라인 전시관 코너에 접속하면 시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또, 전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싶은 관람객을 위해 전시동영상을 여담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시영상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 동대문구청 직원들, '1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을 통한 친환경적 생활문화 조성 노력

동대문구는 최근 불거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시설까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 민간위탁시설은 물론 청사 내 매점이나 카페에서도 종이컵을 포함한 모든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각종 행사나 회의 시에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동대문구는 4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시행한다.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책임 관리자가 지정되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방지를 위한 자

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환경적 생활문화 조성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구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텀블러,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또한 매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공유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태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동대문구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실천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엄마들의 봄! 마음 편히 아이를 맡겨주세요" 강동구, 4월부터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운영!

## 4월 1일 구립또바기어린이집, 강동복지관어린이집 시간제보육실 2개소 추가 개소

강동구가 4월부터 구립또바기어린이집, 강동복지관어린이집 내 시간제보육실 2개소를 추가, 총 6개소 8개반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을 재개한다.

구는 서울 전역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로 1일부터 어린이집과 함께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을 재개했다.

기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중 강동구민회관 내 아이·맘 강동육아센터 천호점이 협소한 공간과 시설의 노후화로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근 강동복지관어린이집(강동구 양재대로122가길 31 / 길동)에 시간제보육실을 신설하여 개소했다.

또, 상일동역 부근 대규모 주택단지인 강일권역 인구유입으로 인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3월 신규 개원한 구립또바기어린이집(강동구 상일로 55 / 상일동) 내 시간제보육실을 신규 개소했다.

이외에도 ▲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성내1동), ▲구립 래미안힐스테이트어린이집(고덕1동), ▲구립 고덕숲어린이집(상일동), ▲구립 래미안솔베뉴어린이집(명일1동)에서 시

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유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가구가 급한 불일이 생기거나 병원이용 등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료는 시간당 4천원이나 월 80시간까지는 시간당 1천원(정부지원 3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월 8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4천원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시간제보육센터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시간제보육은 수요에 필요한 양육가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이다."며 "이외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보육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 문석진서대문구청장, 미얀마민주화운동 지지 선언

## 쿠테타로 국가권력 장악하고 무고한 국민 인권 짓밟는 미얀마 군부 규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5일 오전 서울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서대문구는 인권보호증진 협의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로, 문 구청장은 협의회 소속 지자체 대표의 일원으로 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문 구청장은 "미얀마 군부가 쿠테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뒤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규탄하고 "군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국민들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해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다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얀마 바깥에서의 강력한 연대와 적극적인 지지'가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군부의 폭력과 국민



의 희생이라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얀마 군부의 폭력에 희생된 미얀마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3일에도 직원들의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해체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지의 뜻을 표하고 '미얀마 군부는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문민정부로의 복귀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조상순/기자

# 구로구, 코로나19 백신접종 합동 모의훈련 실시

## 2일 구로구민회관서 진행... 이성 구청장, 모의훈련·예방접종센터 직원, 참여자에 격려

구로구가 2일 구로구민회관(가마산로25길 21)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예방접종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구로구는 "15일 예방접종센터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백신 준비부터 접종, 이상반응 등 돌발 상황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모의훈련에 앞서 이성 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보관부터 시설, 인력 지원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이번

접종 모의훈련과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모의훈련에는 구로구보건소, 의료진, 군·경찰·소방인력, 가상 접종자 30명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훈련은 화이자 백신의 보관과 관리부터 입장대기, 신원확인, 예진표 작성, 의사예진, 예방접종, 접종 등록 및 확인서 수령, 접종 후 관찰, 관찰 종료 후 귀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 환자 발생과 병원 긴급 이송 등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영하 75도 안팎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을 고려한 냉장시설 전력 관리, 정전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모의훈련 참관 후 서울시, 민간전문가, 타 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개선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총평을 실시했다.

한편 구로구는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 6,595명에 대한 1차

김미성/기자



# 종로에서 제일가는 '잘가꾼 집' 찾아요

###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조성 위해 잘 가꾼 집 신청 받아

종로구는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주택 내 다양한 공간을 정성스럽게 '잘 가꾼 집'을 찾아 201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도 「제8회 종로구 잘 가꾼 집」을 선정해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보태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밝은 동네를 조성하고자 지난달 15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 중이다.

대상은 ▲주택 내 다양한 공간을 꽃과 나무 등으로 잘 가꾼 집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주택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경관이 뛰어난 주택이다. 기존에 잘 가꾼 집으로 선정됐던 주택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추천은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이웃주민 등이 할 수 있다. 방법은 6월 11일까지 대상 주택의 전경, 정면, 측면 등이 담긴 사진 및 신청서 등을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오는 6월 중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오는 7월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잘 가꾼 집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8월과 9월엔 시상식 개최 및 작품 전시 또한 예정돼 있다.

신청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

조상순기자

# 송파구, 송파구 버스정류소 주변 지장물 정비

### 9월까지 버스 승하차 시 안전 위협하는 주변 시설물 전면 정비

송파구가 올해 9월까지 버스승하차를 방해하는 정류소 주변 가로등, 가로수 등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구에서 버스정류소 지장물을 점검한 결과, 가로등·가로수·녹지대·전주·소화전 등 총 331개 정류소, 793개의 시설물이 버스 승하차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소 주변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송파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2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2021년도 당해 사업으로 64개 정류소의 182개 지장물에 대해서는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5월 지장물 정

비 공사를 발주하여 9월까지 공사를 마친다.

▲버스 정차위치를 결정하는 버스 표지판, 승차대 등을 이설하여 버스 출입문 주변에 지장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버스의 승하차를 가로막는 가로등, 보안등, 가로수 등의 시설물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승객의 시야와 안전공간을 확보한다.

박성수 구정장은 "버스정류소 주변 지장물로 인해 버스 승하차 시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번 정비사업으로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주민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 주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 영등포구, 주민인권교육으로 인권친화도시 앞장선다...제7기 주민인권학교 개강

### 주거권, COVID-19, 이주인권, 기후위기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구성

영등포구가 구민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제7기 영등포구 주민인권학교'를 오는 4월 19일 개강한다고 밝혔다.

구는 포괄적 인권 이론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심도깊은 인권 강좌의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인권 소양을 갖춘 인권활동가를 양성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6년 이후 매년 주민인권학교를 운영해왔다.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6기까지 총 350명의 구민이 수강하며, 다양하고 시의성있는 주제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인권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개강하는 인권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수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강의로 진행된다.

오는 19일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월,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4회 강의로 꾸려진다.

강의 첫 날인 ▲19일에는 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상임연구원의 '주거권을 통해 본 인권프리즘'을 주제로 주거권 보장과 인권에 대해 학습

한다.

▲21일 두 번째 강의에서는 평화인권교육센터 박근덕 상임활동가의 'COVID-19와 인권', ▲26일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주민센터 친구 이재호 활동변호사의 '대립등에서 바라본 이주인권', ▲28일 마지막 강의에서는 성공회대 사회학과 조효제 교수의 '기후위기와 인권-탄소 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마무리한다.

3강 이상의 출석 수강생에게는 별도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인권에 관심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6일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인권은 모든 구정업무의 최우선 가치이자 최종 목적"이라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의 운영으로 구민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도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제7기 영등포구 주민 인권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3.29(화) ~ 4.16(금)

**모집요강**

- 교육기간: 2021.4.19.~4.30. (기간 총 4강, 19:00~21:00)
- 교육방법: ZOOM활용 비대면 영상강의
- 교육대상: 인권에 관심있는 영등포구 주민 누구나
- 교육주제: COVID-19와 인권 등 4개 주제

차수	일자	내용	강사
1강	4.19.(화)	주거권을 통해 본 인권프리즘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강	4.21.(수)	COVID-19와 인권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상임활동가
3강	4.26.(월)	대립등에서 바라본 이주인권	이재호   이주민센터 친구 활동변호사
4강	4.28.(수)	기후위기와 인권-탄소의 종말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021.3.29.(화)~4.16.(금)
- 접수방법: 구청 홈페이지 접수(통합예약) > 온라인접수 신청 > 온라인 접수
- 이메일(ghy1122@ydp.go.kr) 및 팩스(02-2670-3575)
- 문의처: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Tel. 02-2670-3040)

#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 문화재 생생하게 만난다

### 2021년 생생문화재사업 '중구를 번지점프하다' 운영 시작

인천 중구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2021년 생생문화재사업 '중구를 번지점프하다'가 오는 2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의 문턱을 낮춰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중구는 2019년부터 개항장 일대의 근대문화재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중구의 생생문화재 사업은 총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이 독립군 이 되어 장소 미션을 수행하고, 태극기를 주제로 무형문화

재 단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대표 프로그램인 '독립자금을 마련하라' 이외에도 유치원 및 저학년 아동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춘 스토리텔링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인 '나도 미래의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주관단체인 인천중구문화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2021 생생문화재 중구를 번지점프하다**

**독립자금을 마련하라!**

개항장 일대의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4월 10일 / 10월 24일 토요일
- 10월 11일 / 10월 25일 / 10월 26일 / 10월 27일
- 10월 28일 / 10월 30일 / 10월 31일
- 10월 31일 / 11월 1일 / 11월 2일
- 11월 3일 / 11월 4일 / 11월 5일
- 11월 6일 / 11월 7일 / 11월 8일
- 11월 9일 / 11월 10일 / 11월 11일
- 11월 12일 / 11월 13일 / 11월 14일
- 11월 15일 / 11월 16일 / 11월 17일
- 11월 18일 / 11월 19일 / 11월 20일
- 11월 21일 / 11월 22일 / 11월 23일
- 11월 24일 / 11월 25일 / 11월 26일
- 11월 27일 / 11월 28일 / 11월 29일
- 11월 30일 / 11월 31일

**나도 미래의 독립운동가!**

스토리텔링 문화재해설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 4월 10일 / 5월 23일 / 10월 24일
- 10월 25일 / 10월 26일 / 10월 27일 / 10월 28일 / 10월 29일 / 10월 30일 / 10월 31일 / 11월 1일 / 11월 2일 / 11월 3일 / 11월 4일 / 11월 5일 / 11월 6일 / 11월 7일 / 11월 8일 / 11월 9일 / 11월 10일 / 11월 11일 / 11월 12일 / 11월 13일 / 11월 14일 / 11월 15일 / 11월 16일 / 11월 17일 / 11월 18일 / 11월 19일 / 11월 20일 / 11월 21일 / 11월 22일 / 11월 23일 / 11월 24일 / 11월 25일 / 11월 26일 / 11월 27일 / 11월 28일 / 11월 29일 / 11월 30일 / 11월 31일

문의처: 인천중구문화원 (032-752-2779) / www.incheon.go.kr

**2021년 인천광역시 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모집**

모집기간: 2021.04.05.(화) - 2021.04.16.(금)

오디션을 2021.04.20.(화) 오후 7시 인천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오디션방법: 자유곡 1곡 (반주 포함한 악보 지참, 반주자 동반하지 않음)

홍시 자격: 인천 서구 거주 및 재학 중인 만 8세 - 만 18세 이하인 자

단원 혜택: 소정의 활동비 지급 및 봉사활동 시간 부여

연습 일정: 매주 월, 목 18:00 - 20:00

연습 장소: 인천서구문화회관

접수 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방문: 서구 영곡로464번길 15 쓰리텐타워 7층 인천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 9:00-18:00 (정식시간 제외)

이메일: ppj619@iccf.kr (메일 제목은 소년소녀합창단-지원자 성명 으로 발송)

문의: 인천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 070.4251.6510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www.iccf.kr

### 장정민 용진군수, 중국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한 적극 행보

장정민 용진군수는 6일 해상주권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위문하고,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자행되는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용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서해5도 서 NLL 인근 해상에 출현한 불법 중국어선은 日 평균 20척이었으나, 본격 조업철인 4월이 도래하면서 日 평균 100척 이상으로 크게 늘어 서해5도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용진군수는 이날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이어 인천해양경찰서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과 어선, 레저선 등에 대한 안전 지도를 요청하는 등 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남기자



### 울진해경,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실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5일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하며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한 단속은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광관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현기자

이와 함께 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파주시, 올 들어 두 번째 개학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

파주시는 올 들어 두 번째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1일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학부모폴리스(민간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정 이마트 및 야당역 근처 상가밀집지역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4개조로 나뉘어 당구장, 노래방, PC방, 편의점 등을 방문해, 해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홍보물 등을 배부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홍보했다.

파주시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 까지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에 학교주변 및 상가밀집지역 과 같은 청소년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활동을 통해 위기 청소년 발굴도 함께 병행한다.

김지숙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캠페인 활

동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인천시, 폐수 불법배출업소 무기한 특별단속...엄중 대처

상반기 시, 남동구·부평구·서구와 공조 '특별 단속반' 구성

인천광역시시는 4월부터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농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폐수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금년 3월부터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 과 '하수처리구역 특별환경단속반 구성·운영 계획' 수립 시행 중에 있다

특별단속은 폐수배출업소 2,318 개소 중 사전 고농도 하수유입 맨홀수질조사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 지역과 대상 업체를 선정해 남동구, 부평구, 서구와 함께 정밀점검을 실

시하고, 중점 단속 대상은 하수처리장 주변 도금 및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로 제조과정에서 발생 한 폐수처리 및 폐수위탁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폐수 불법처리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상설 단속반 구성 전까지 관련기관과 인력을 동원해 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 상설 단속반이 구성되면 첨단환경감시장비(지하매설물탐지장비(GPR), 하수관 CCTV, 미생물활성도 계측기, 이동식 수질자동측정장비 등)를 도입해 24시간 감시 및 지하 불법배관까지 정밀점검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지난달 가좌·승기 하수처리장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적극 협력을 당부했으며, 향후 총 질소 오염도가 높은 도금 및 PCB(인쇄회로기판제조)업종 715개소와 식품 24개소에 대해 관계자 간담회와 단속을 병행하여 폐수 불법배출 근절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혈세로 부담되는 만큼 적발업체는 엄벌하겠으며 무엇보다 업체의 공공수역환경보호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평택시, 폐기물 무단방치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129개소 적발

평택시는 '푸른하늘 맑은평택'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동절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 사례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4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6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리기준 위반 28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조치미흡 7건, 폐수누출·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오염 2건 등 총 1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한 위반업체에 대해 서는 영업정지 12건, 폐기물 조치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54건, 기타 47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중 무허가(신고)

영업 및 수백 톤의 폐기물 불법처리업체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검·경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

체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특화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중하거나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 환경 행정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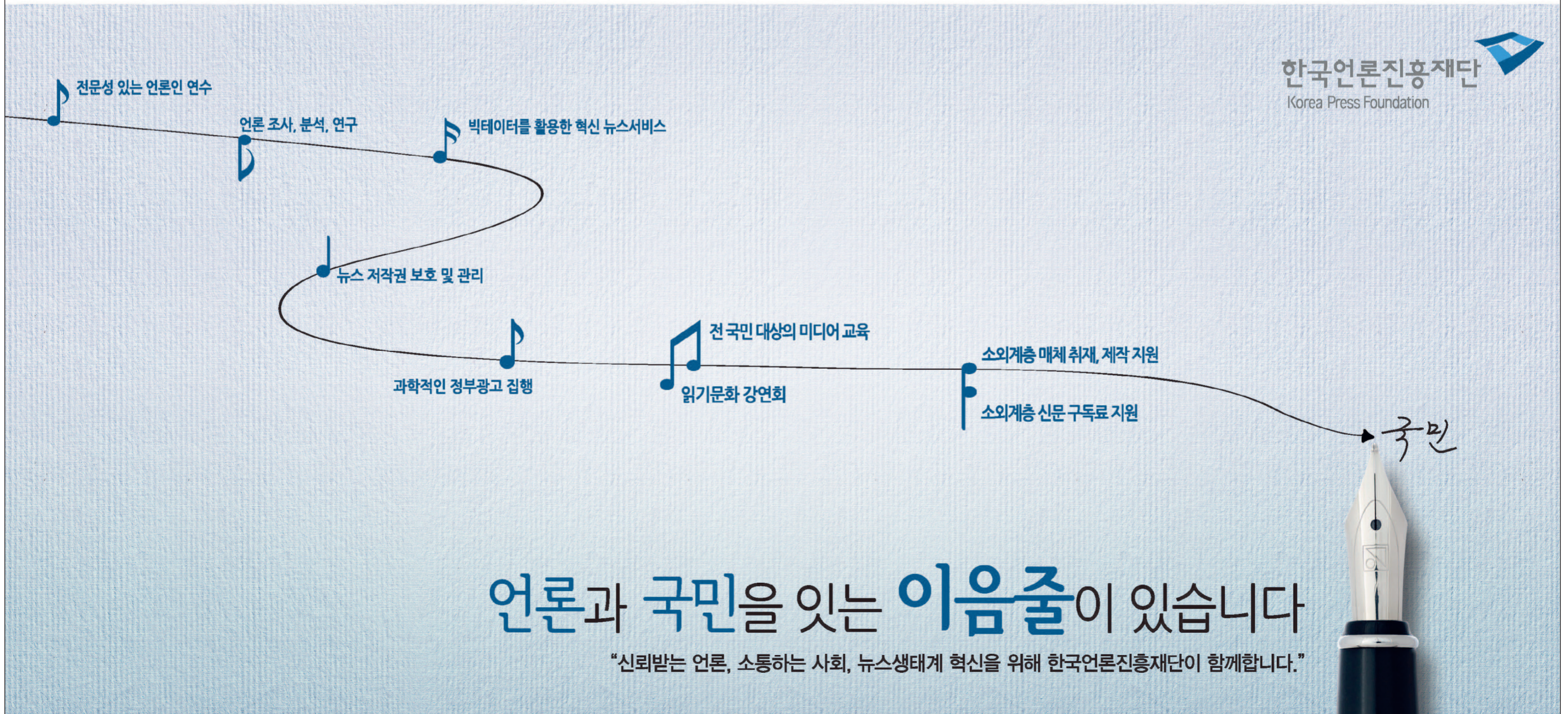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언론 조사, 분석, 연구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읽기문화 강연회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국민

##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 홍천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비상(飛上)&비상(非常)

##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총 37명의 예술가가 참여

홍천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비상(飛上) & 비상(非常)'을 통해 원도심인 신장대리 일원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홍천군이 주최하고 DK디자인&조형연구소(예술감독 박대근)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비상(飛上) & 비상(非常)'에는 총 37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19점의 작품과 3개의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飛上) & 비상(非常)은 홍천군 원도심의 부흥과 예술을 통한 제도 약,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의식 복원 및 지역 주민의 자생적 조직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군은 이를 통해 홍천지역의 관심과 호감도를 상승시켜 관광객 유입 및 지역 특산물 구매 장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비상(飛上) & 비상(非常)의 주요 대상지는 홍천의 원도심인 신장대리 일원으로 중심 상권인 홍천중앙시장과 홍천전통시장 내·외부에 예술작품 설치 및 트리아트 등을 통한 환경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신장대로와 꽃피로, 홍천로6길이 만나는 신장대리 골목길에는 '아



트골목길'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 있다.

김완수 홍천군 문화체육과장은 "홍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홍천을 문화예술적으로 특색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飛上) & 비상(非常)의 작품 제작은 완료된 상태로 중앙시장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작품 설치 장소를 놓고 원활한 협의가 진행중

에 있다. 먼저 오동훈 작가의 작품인 '사슴과 구름'은 홍천중앙시장 옥상에 설치를 마쳤다.

작품은 기하학구조의 각면 사슴형태에 사슴뿔에 걸린 구름의 모습을 표현한 동화적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신장대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트골목길 조성도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다.

정동희기자

# 안성시 4월 걷기 챌린지 운영, "봄바람 휘날리며 걸어요."

## 안성시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실과 함께

안성시는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이용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걷기 챌린지는 1걸음 당 1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일 간 18만점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추가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 전원에게 모바일상품권 5000원을 증정한다. 단, 마일리지는 1일 최대 1만 1000점까지만 적립 가능하다.

추가 미션은 안성시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실과 함께하며, 20일 간 18만보 이상을 달성한 참가자는 달성 화면을 캡처 후 카카오톡 '안성시보건소 고당고혈'플러스 채널 채팅창으로 사진을 전송하면 추가 미션이 완료된다.

아울러, 안성시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카카오톡 '안성시보건소 고당고혈'플러스 채널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강의 송출·교육자료 제공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이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따뜻해진 날씨 속 걷기 실천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걷기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꾸준한 걷기 실천을 위한 워크온 챌린지의 참가를 원하는 경우 ▲워크온 앱 설치 ▲안성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챌린지 화면에서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를 선택한 다음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최근수기자



# 안산시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전격도입

## 높은 배달수수료 고통 받는 소상공인 위해...가맹점 모집 후 4월 중 오픈

안산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정식오픈을 앞두고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존 민간 배달 앱 수수료가 최대 15.5%인데 비해 배달특급은 광고료 없이 2.2~3.5% 중개수수료만 내면 돼 영업비용 부담을 과격적으로 낮추었으며, 이용자는 안산화폐 '다운' 등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최대 10% 선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가맹을 원하는 점포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대표메뉴 이미지, 메뉴판 이미지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이후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순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메뉴등록, 입점절차 등을 진행한다.

소비자는 앱 스토어(iOS), 플레이 스토어(AOS)에서 앱 설치 후 사용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소상공인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누리는 배달특급을 빠른 시일 내 정착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오산시 코로나19 청소년격리자 심리키트 제공

오산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4월부터는 자가격리 중인 아동·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키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 자가 격리로 우울과 불안, 답답함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민의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해 공예, 밀키트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기간이 7일 이상 남은 만 4세~34세인 오산 시민을 대상으로 1주일에 1회, 총 2회분의 키트가 제공된다. 보호자와 함께 자가격리 중인 아동·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가격리 하는 동안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경을 써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느껴지니 덜 힘들었다. 게다가 소소한 재미가 있는 컵케익 만들기 키트까지 주셔서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고동훈 보건소장은 "따뜻한 계절인 봄이 왔음에도 자가격리로 인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오산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아동·청소년, 청년층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산 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031-374-8680)로 신청할 수 있다.

김남주기자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교육도시

# 오산



# 경북 중서부권 상생협력 하늘길 동맹 협약 및 포럼 개최

## 수도권 블랙홀화 지방 위기 속 지자체간 연대 필요성 공감

구미시는 4월 5일 경운대학교에서 인근 지자체(군위, 의성,칠곡)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하늘길 동맹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신공항 관련 포럼을 개최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 김주수 의성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한성욱 경운대 총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경북 중서부권 하늘길,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하는 길'이라는 기치 아래 통합신공항 관련 기초연설, 시군 단체장 협약식, 항공시설 시찰, 신공항 연계 발전방안 포럼 순으로 진행되었다.

4개 시군은 수도권 집중화·과밀화 속에 쇠퇴하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과 지방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접 지자체간 행정구역역을 넘어 지역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준비하였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경제권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 항공산업, 여

객물류, 문화·관광, 제조업 등이 순환하는 공항 생태계를 구축으로 관련 산업을 선점하여 지역 신성장 거점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한국관 뉴딜, 통합신공항 등 정책방향에 대응한 광역경제벨트 구축, 지역발전 연계 사업선정 공동 노력, 대규모 SOC사업 공동 추진, 교육·문화·관광사업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협력을 약속하였다.

이어, 박용남 인천국제공항공사 물류운영팀장의 '통합신공항을 통한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된 포럼에서는 스마트캐빈산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물류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등 신공항 시대 지역 연계 발전 및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에서도 변화와 발전을 위한 자생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접 지자체간의 광역경제권을 향한 연대와 협력은 각 시군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연계 산업에 대한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협약이 광역경제벨트 조성의 기반이 되고, 광역 프로젝트를 통한 자원의 공동 이용 및 상호 보완적인 산업 육성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하늘길 동맹에 대한 기대를 전하였다.

앞으로 하늘길 동맹은 광역생활권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 힘찬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세기기자

# 안동시, 위기청소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관내 성폭력 피해 고위기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경북북부 해바라기센터와 지난 4월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안정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연계 서비스 제공,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권익보호, 성폭력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윤식 경북북부해바라기 센터장(안동의료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

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성폭력피해를 입은고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가정·학교·사회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전화와 함께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세기기자



#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모아 사랑뜨개"

##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 친환경 수세미 나눔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월 6일 영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수세미 160점을 지역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손모아 사랑뜨개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손뜨개방'쑈이',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주민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되길 바라는 마음에 뜰들이 주방용 수세미와 비누갑 수세미를 제작하였으며, 작년 겨울에도 수준급 뜨개질 실력으로 직접 만든 머플러, 모자, 귀마개, 가방 등 90점을 기부하여 나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각 가정에서 물품을 만들어 기부할 수 있어, 지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언택트(Untact) 봉사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수세미 나눔 사업을 통해 관내 홀몸노인, 장



애인, 취약계층 아동 등에 전달하여 위생적인 환경유지와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준 공공위문장은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 우울한 요즘 봉사

자들은 선물하는 기쁨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알뜰달뜰한 뜨개소품으로 좋은 기분을 전달받아 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문경관광진흥공단-문경시상권 르네상스추진단과 상호 교류 발전을 위한 3자 협약 체결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경관광진흥공단, 문경시상권르네상스추진단과 손잡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4월 2일, 문경관광진흥공단과 문경시상권르네상스추진단과의 3자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경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협력관계 구축, 원도심 활성화,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점촌1.2동 상점가(역전, 행복, 중앙시장)의 이용객은 상점가 영수증을 제시를 통해 문경관광진흥

공단에서 운영 중인 관광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원도심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문경새재로 향하는데 이 발걸음을 구도심으로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협약이 그 시초가 되길 바란다"며 김규경 이사장은 협약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으며 "지방 소도시에서 많은 유입인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관광객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앞으로 도시재생에서 일궈낼 다양한 행사, 시설 등에 이번 협약으로 인한 혜택들까지 더해지면 많은 관

객이 분명히 구도심으로 올 것이다."라며 의지를 더했다. 또한 윤현숙 단장은 "상권르네상스사업구역과 도시재생사업구역이 동 일한데 이 두 사업으로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도와주셔서 더욱 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협약에 대한 만족을 내비쳤다.

현재 점촌1.2동은 도시재생뉴딜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이 사업들에 문경관광진흥공단의 협약을 통한 홍보 마케팅이 더해져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는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반식/기자

# 포항시 청년창업 LAB, 'the 신촌's 덮죽' 최민아 대표 초청 무료 특강 개최

## 성공 창업가의 노하우로 성공 창업의 꿈 이룬다

포항시 청년창업LAB에서는 5일 '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이후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the 신촌's 덮죽' 최민아 대표를 초청해 성공창업 무료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을 대상으로, 최민아 대표만의 성공 스토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창업과 관련한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최 대표는 요식업 운영 경험 없이 수제 돈가스 가게를 오픈하여 경영

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그만의 열정과 노력으로 연구해온 100여 가지 레시피를 바탕으로 '덮죽'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고, 'the 신촌's 덮죽'을 새롭게 오픈해 지금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 맛집으로 변모시켰다.

이날 최 대표는 몸으로 부딪치며 터득한 창업부터 레시피 개발, 상표 등록,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자신만의 생생한 노하우를 공유해 예비 창업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들이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강에 참가한 박모씨는 "창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막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특강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포항시 청년창업LAB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창업 성공CEO들을 초청해 지역 창업가들의 성공 창업을 향한 지름길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현/기자

# '경주 천년한우'... 2년 연속 한우부문 국가 브랜드 대상 쾌거

## '경주 이사금'도 올해 첫 농축산물 분야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 안아

경주시는 지역 한우브랜드인 '경주 천년한우'와 '경주 이사금'이 '2021년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각각 한우 부문과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경주 천년한우'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도했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중앙일보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페스티벌이 공동 주최·주여하는 상으로, 문화·산업·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호감도 등을 다면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산업 부문 35개 브랜드, 지역 부문 20개 브랜드, 문화 기관·작품·개인 부문 3개 브랜드가 선정됐다.

천년한우와 이사금은 국가 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 사전 기초조사를 거쳐 상위 브랜드로 선별된 뒤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 지난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한우 부문과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천년한우와 이사금은 이날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에 따라 유통업체는 물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의 요인은 식품 안정성을 위해 자체 품질관리, 유통관리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주 천년한우'는 "생산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확보"라는 가치 아래 전국 최초 한우

사육단계 HACCP 인증과 안전관리 통합인증(황금 HACCP 인증)으로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위생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생산자들이 이 같은 기준을 어긴 경우에는 상표 사용정지 및 승인 취소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년한우와 이사금이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기까지 품질관리에 협력해 준 농축산인들을 포함한 경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국가브랜드 대상의 공을 돌렸다.

한반식/기자

# 2021 울진군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장터' 개장

울진군에서는 7일 오전 10시부터 울진군이 후원하고 울진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장터'를 울진바지계시장 내 남부떡집 앞에서 개장한다고 밝혔다.

울진군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장터」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중심의 유통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진 장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울진장날(2,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소비자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과일 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과 김치 등 최고 품질의 농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장터가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 부산시,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본격 시동

###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작, 3월까지 참여업체 모집·선정 완료, 4월부터 신청·접수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 클린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총 1,98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클린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높은 지원금과 꾸준한 홍보 효과로 시민들 참여가 두드러져 사업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바 있다.

올해는 시비 2.7억 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가구당 1대 설치 시 와트(W)당 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개인, 단체별로 할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 23일까지 부산시에 본사를 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였으며 단, 안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은 부산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5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시는 3월 말까지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하여 4월 초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시민참여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를 꾸준히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으로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남해마늘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남해군은 지난 3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남해마늘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를 비롯해 통합마케팅조직대표, 지역농협대표,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임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난 2월, 남해군은 12일간 ‘남해마늘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방향을 조사한 바 있다.

이날 군은 용역사로부터 남해마늘 브랜드 및 디자인 5개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공유했다.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안으로 △ 남해비법으로 키운 남해마늘 △ 대한민국 마늘중심 보물 섬마을 △ 요리의 품격을 살리는 남해맛날 △ 남해군을 특별하다, 흙·바다·빛·해풍 남해품 마늘 △ 남해 보물섬이 키운 해왕마늘 등이 제시되었다.

이후 4월 중순 최종보고회에서 이

날 공유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마늘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올해는 남해마늘의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마늘가격 보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산청군 산청한방향노화산단 재도약 발판 마련한다

### 2023년 엑스포 대비 인프라 개선...약초산업 기반 다져

산청군은 ‘산청 한방향노화 일반산업단지’가 경남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한방약초산업의 생산·유통 체계를 고도화 하는 한편 향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군 지역 온라인쇼핑몰인 산엔청쇼핑몰을 중심으로 카카오 스토리채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비롯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등 온·오프라인 유통 기반확대와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역 내 약초생산능력과 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규격과 디자인의 포장재를 지원, 산청 한방약초의 상품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의 재정부담도 덜고 있다.

더불어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본디울(주) 등 지역 내 한방약초 생산·가공 관련 기업들과 함께 HGMP(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 시설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은 인증을 통해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청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약재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대규모 약초재배를 통한 유통활성

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 향노화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의 관광·체험 인프라를 개선·확충하고 있다.

우선 동의보감촌의 출입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을 설치하고, 색다른 즐길거리인 출렁다리 ‘힐링교’도 건립하고 있다. 또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 둘레길 코스와 맞닿아 있는 왕산을 좀 더 편하게 둘러보며 힐링 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이 숲은 동의보감촌 내 핵심 힐링 시설 중 하나인 한방자연휴양림과도 연결돼 시너지를 더할 예정이다.

군은 2019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70억원을 지원받는다.

산청군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약초를 기반으로 한방약초 융복합화 구축, 약초농업기반 고도화, 한방약초 수출확대·베이스 캠프 구축, 한방약초산업 활성화 등 산청 한방약초산업의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한방향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약초생산 기반을 다지는 지원사업도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은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과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이 주요 골자다.

한편 지난 3월 말 경남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산청 한방향노화 일반산업단지’는 앞으로 경남도 외 지역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최대 1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금서면 평촌리 일대에 조성된 한방향노화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모두 완료돼 즉시 입주 가능하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향노화 테마파크인 동의보감촌을 비롯해 지리산과 경호강 등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은 물론 산청IC, 생초IC, 단성IC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한방 향노화 기업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향노화 산업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부각되고 있는 K-바이오산업과도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은 물론 국내와 해외 기업들이 우리 향노화산단에 입주 할 수 있도록 경남도 투자유치지원단, 경남개발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영기자

### 창원시, 상남동 복합공영주차빌딩 이달 중 준공한다

#### 허성무 시장, 공사 현황 점검...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로 시행

창원시는 5일 오후 2시30분 성산구 상남동 복합공영주차빌딩 공사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이달 준공을 앞둔 상남동 복합공영주차빌딩의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남동 복합공영주차빌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로 시행하는 것이며, 30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지면적 2755.9㎡에 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19,048㎡ 규모로 3,654㎡의 근린생활시설과 416면(15,394㎡)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남동 복합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은 진해구 석동, 용원동, 의창구 팔용동 복합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상남동 공사가 완료되면 총 4개소 1077면의 주차면을 확충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들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4개소 공사 현장은 지난해 허성무 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역자재와 장비 등 지역 인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 복합공영주차빌딩이 완공되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추진)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 '전북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 본격 운영

### 4월 5일 부안 청호수마을 시작으로 준비된 마을별로 시행, 참가자 연수비 월 30만원 지원

전라북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전북 생생마을 살아보기'(이하 '생생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생마을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전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장기간 살아보면서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주된 관심이 정보습득, 정책자금 지원을 넘어 직접 농촌에서 생활하는 실천체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생생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 정착으로 이어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전라북도는 13개 시군, 16개 마을에서 65가구를 목표로 3월부터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부안군 청호수마을이 5가구 8명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해 4월 5일 관계자들과 간소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참가자에게는 개인당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며, 최장 6개월의 주거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체험 및 영농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맞춤형 일자리 제

# 광양시, '숲속의 광양' 조성 위한 도시녹화 행사 가져

### 2050 탄소중립 실현'다짐, 70여 그루 나무 식재

광양시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오후 2시, 광양읍 덕레리 운전면허시험장 앞 경전선 폐선부지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현, 숲속의 광양'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역 내 기관·사회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 숲속의 광양' 조성을 위한 다짐대회를 열고, 홍가시나무, 먼나무, 동백나무, 홍가시나무 등 난대상록수종 7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시는 행사를 통해 작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도시녹화 붐을 일으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올해를 '탄소중립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민관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기석/기자



# 익산 배산공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첫 삽

### 익산시가 도심권 대표 휴식공간인 배산공원 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본격적인 첫 삽을 뜬다.

시는 이번 배산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 수 개월간 지속적인 협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 1단계로 이달부터 진입 주차장에서 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맞이공간 500m에 노후 콘크리트 철망과 고사목을 제거하고, 공간 확장 후 수국·연산홍 등 5종의 관목류 1만 901주와 맥문동 군락을 확장 및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운동시설 포장 정비, 진입로 평탄화 작업도 이뤄진다.

2단계로 오는 6월부터 산발적으로 개설된 산책로를 간소화하고, 연주정 정상까지 주요 산책로 3km 구간에 노후 울타리와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현동에 소재한 배산공원은 지역 중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지난 1958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많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허파인 배산공원의 단계별 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다이아몬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장흥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55호 달성에 가속 붙다

장흥군은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 확대 추진에 나서 3월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 121개를 접수,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3년 이내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155호를 대상으로 축산사업소 소장을 포함, 팀장들로 2개 읍면씩 책임담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읍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달 반상회보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장흥축협에서도 우시장에 "깨끗한 농장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농장을 만들시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축산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가축의 사육 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및 배출 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절차는 읍면에서 신청서 접



수 후 군의 서류 심사와 축산 환경관 리원의 현장 검증을 거쳐 70점 이상이면 농립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는 지정서 및 현판이 증정되며, 자금심 고취는 물론 각종 축산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장흥군은 1분기에 신청서를 제출한 121개 농가(한우 110호, 오리 8호, 닭3호)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

리하여 올해 목표 155호 지정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악취 감소와 가축분뇨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 농장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축산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 전주시, 올해 일반택시 60대 줄인다

전주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여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최근 2021년 제1차 전주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 일반택시 60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하고, 대당 2950만 원의 감차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택시 감차는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전주시에 인가된 택시 3860대 중 588대가 공급과잉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과잉공급량의 60%까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과잉공급량의 40%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택시 감차사업을 통해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와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경영 활성화를 돕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택시의 적절한 공급을 유지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재정 상태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 완주군 삼례읍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시행

완주군 삼례읍이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한다. 6월 삼례읍에 따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 송정 경로당 외 4개소에 4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화장실 보수 및 욕상방수공사, 태양광 설치 등 경로당에 우선 필요한 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월산 경로당은 태양광 설치사업을 이달 시행해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삼례읍에는 경로당 5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다. 김동준 삼례읍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 Z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숲**  
이름다운 숲이 가장  
조지훈과 주심마을

**길**  
상쾌함이 이곳에서  
하트처럼 울려퍼지며  
오래전부터 영양군민  
의 보물창고인 영양군민

**빛**  
별이 채워진 밤  
정경이 아름다운 밤  
2020년 10월 1일부터  
영양군민들의 보물창고인 영양군민

**맛**  
사반나들이에  
반가워주세요  
전국 최고의 영양군민

**심**  
자연과 벗하던  
기쁨이 가득한  
영양군민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침벽굴, 축맥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곰촌마을, 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발라드보도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보전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명령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하동 군민상에 이수영 우람종건 대표

## 하동군, 고향에 사회공헌 및 나눔 실천한 공로인정...군민의 날 때 시상

고향 하동에 많은 관심과 꾸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한 ㈜우람종합건설 이수영 대표가 2021년 하동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동군은 군민상심사위원회(위원장 정연가)가 최근 회의를 열어 군민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심의 결과 이수영 대표를 지역사회개발 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수영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하동군을 위해 사회공헌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 대표는 고향의 농업인들을 위해 2000년부터 하동 농·특산물을 꾸준히 구입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2년간 4억여원의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협약을 체결해 하동의 우수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침수된 화개장터의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한 것은 물론 각종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수재민 성금 1억원을 기탁했으며, 장학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기부해 고향 후배들에게 꿈을 이어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생으로 긴급지원금을 1000만원 기부했으며, 11월에 하동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스크 10만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등에 긴급 배부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한편, 하동군은 오는 15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수영 대표에 대한 군민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 한국잔디협회 윤정호 회장, 하동군 인재육성에 동참

## 하동군장학재단, 거액 장학기금 기탁...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원대한 꿈 이루길

하동군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도 거액의 장학기금을 기탁해 하동의 미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기업가가 있어 지역사회에서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학교 재학생 시절부터 잔디를 재배해온 한울스포츠잔디 대표이자 한국잔디협회 윤정호 회장이다.

하동군장학재단은 윤정호 회장이 최근 윤상기 군수와 차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군수의 인재육성 철학에 감동해 그 자리에서 장학기금을 내기로 해 동참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윤정호 회장은 "지금껏 '불타는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좌우명으로 삶을 살아오고 있다"며 "우리가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도전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기 군수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거액을 기부해주신 윤정호 회장께 고마움을 표시하며 "알프스 하동의 인재들에게 꿈을 이루는 희망의 백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호 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후학양성을 위해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특히 잔디 분야의 다양한 연구업적과 신제품개발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잔디 산업의 선구자이며 새마을 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14대 황인두 회장 취임

지난 30일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제 14대 회장으로 황인두(60)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황인두 회장은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봉사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며 "헌신과 열정으로 바르게살기를 힘차게 이끌어 오신 박오상 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하다"고 취임 의지를 밝혔다.

이날 황인두 회장은 특히 "회장 취임에 기쁨보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회원들이 이루어 놓은 역사와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대면 봉사활동이 제한되는 이 시대에 봉사활동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비대면 봉사활동 ITEM 발굴에 힘쓰고,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 2,000여명의 회원들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밀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 제 15·16대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회장이·취임식 개최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는 지난 2일 새마을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군회장단 및 읍·면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16대 지회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5대 강순달 회장은 새마을기기를 제16대 오병환 신임회장에게 이양하며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지닌 오병환 회장을 주축으로 신뢰받는 새마을의령군지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6대 오병환 신임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땀아는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의령 만들기'에 앞장서서 더욱 신뢰받는 새마을의령군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오병환 신임지회장은 2009년 의령읍 새마을지도자로 선임되어 의령읍협의회장과 의령군문고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3월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장으로 선출되어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만 참석하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강영훈기자



# 지소연-김혜리 "이번에는 꼭 올림픽으로"

여자 국가대표팀의 지소연(헬시FC위민)과 김혜리(인천현대제철)가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 획득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8일 고양, 13일 중국 쑤저우에서 중국과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1, 2차전을 치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미뤄지다가 확정된 맞대결이다. 도쿄올림픽행 티켓이 걸린 운명의 경기를 앞두고 벨호는 지난 달 22일부터 소집훈련에 돌입했다. 한국여자축구는 지금까지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에 올림픽행 티켓을 따낸다면 역사상 최초의 본선 진출 달성이다.

여자대표팀의 베테랑 지소연과 김혜리는 올림픽 본선 진출이 간절하다. 매년 본선 진출에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를 깨지 못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지소연은 2008 베이징 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 예선에 나섰으며 김혜리도 2012 런던 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예선에서 뛰었다.

2일 대표팀에 합류한 지소연은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다"며 "대표팀에 오기 전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왔는데 몸도 좋았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다. 소속팀에서 얻은 좋은 기운을 대표팀에서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소연은 최근 소속팀인 헬시FC위민의 유럽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강행을 도왔다.

이어 "대표팀에 들어온 지 1년이 넘는 것 같다. 선수들도 오랜만에 본다. 후배들에게 따로 조언하기보다는 운동장에서 발을 잘 맞춰야 한다. 올림픽 본선에 나가기 위해 왔으니 중국과의 두 경기를 잘 치러 꼭 본선행 티켓을 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장 김혜리는 "팀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활기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벨 감독님이 빠른 공수전환과 능동적인 플레이를 많이 강조한다. 빠르게 압박해야 공격할 때 수월하게 나설 수 있기에 많이 그리고 부지런하게 뛰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고참인 만큼 후배들을 잘 이끄는 것도 주장인 그가 해야 할 몫이다. 김혜리는

# 윤형중, 신임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임명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윤형중(49) 전 세종컨에안요양원장이 5일자로 임명됐다.

윤형중 처장은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노인과 가족,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했으며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 평가위원, 우송대학교 NCS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위원, 충북노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위원 등을 지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 행정·조직 관리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처장은 "세종지역의 복지발전과 나눔문화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중점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협의회가 민간복지 전달체계로서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민관이 복지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도록 광역협의회 고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협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조사연구사업, 물품 및 식품을 기부 받아 복지사각지대에 제공하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마켓·뱅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센터 외에도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재은기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과 함께 있다. (팀 최고참인) (김)정미 언니가 존경스럽다. 언니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낀다. 후배들이 소집기간동안 우리를 보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혜리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부딪혀 반드시 승리를 따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무조건 본선에 가야 한다"며 "중국과의 두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올림픽 본선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는 꼭 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농촌 체험 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 이철우 지사는 수출기업 氣살리고... 기업은 기부금 쾌척

### 4월 5일, 이철우 도지사 (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간담회 개최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회장단 17명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을 독려했고,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법인인 이웃사랑 행복나눔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철우 지사는 먼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인들은 그 충격을 수용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열심히 뛰고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회복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경상북도 수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며 경북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경북도 총수출은 비대면 산업 호조로 6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56억 8천 5백만 달러 대비 17.2% 증가했다.

이날 경수협 회장단은 코로나19 시대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 가속화

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고, 해외출장과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 속에 온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확대와 수출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비와 해외인증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배영일 경수협 회장은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는 있지만, 일부 업종은 아직 수출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경북도와 수출지원 유관기관들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해외마케팅과 생산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44회에 달하는 온라인무역사절단, 온-오프라인 전시회, 화상수출상담회 등 비대면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출장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사 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나라보다 빨리 현지 수요에 대응하고, 좀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경북도의 해외인증, 국제특송(EMS) 물류비, 수출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에 앞서 경수협 회장단 17명은 경북형 민생살리기 대책의 하나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도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김세기기자



# 시흥시 정왕본동 유관단체협의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 적극 지원

정왕본동 유관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를 적극 지원 하고 있다.

정왕본동은 전체 인구가 4만 2,115명 중 내국인 2만274명, 외국인 2만1,841명으로 외국인수가 내국인수보다 더 많다. 특히 경기도내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해 현장접수 상황이 다소 혼잡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외국인 현장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시간을 20시까지 연장했으며, 일요일인 4일에도 9시부터 17시까지 접수를 진행했다.

여기에 유관단체 회원들도 손을 보탬다. 정왕본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족자율방범대, 어

머니방범대,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9개 유관단체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를 적극 돕고 있다.

유관단체 회원들은 외국인 현장접수가 시작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오전, 오후 근무조를 편성해 현장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방법 안내,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질서유지 안내 등을 맡는다.

정왕본동 유관단체협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내국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에 유관단체협의회가 적극 힘을 보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늘은 정왕본동장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외국인들을 위해 봉사해주신 유관단체협의

회 회원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주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동 유관단체협의회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함께 한다면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한 경우...6일부터 지급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하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특히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 때문이다.



중기부는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그 혜택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

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 세종시 매주 화요일 '경제·사회' 배움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시민, 공직자 등을 위한 경제·사회분야 강연을 개최한다.

시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6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경제·사회'를 주제로 '2021년 정책 아카데미'를 시청 여민실과 유튜브로 온·오프라인 운영한다.

정책아카데미 '경제·사회'는 이 분야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강의로,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계 등을 포함해 총 8강으로 진행된다.

첫 강의인 13일에는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디지털 뉴딜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강단에 서며, 20일에는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27일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와 전국민 고용보험(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월 4일 '포용경제 필요성과 실현방안(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 열린다.

11일은 '세종, 대한민국 그리고 세

계(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 18일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내실을 지키는 금융활용법(성수용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이 각각 열린다.

25일에는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의 바람으로 미래 총정 100년을 설계하다(강석구 충남대 교수)'가 진행되며, 마지막인 6월 1일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미디어 참여(홍미애 세종시청 자미디어센터장)'를 주제로 강연 일정이 마무리된다.

올해 정책아카데미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명예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강신청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오는 9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 여민실에서는 50명 이내 대면 참여만 가능하며, 세종시 및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준희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정책아카데미가 미래사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강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